‘온라인 종교활동’ 적극 지원된다

문체부 · 과기부 지원책 발표
200인 이하 종교단체 대상
인터넷 동영상 안내서 배포
데이터 · 통신환경 지원 추진
‘乘車 신행’ 무선국 허용도

신성민 · 송지희 기자


서울 강남 봉은사 유튜브 스트리밍 제작 현장의 모습.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에 나선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9일까지 연장되면서 온라인 법회와 신행이 적극 권장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에 나서 눈길을 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비대면 종교활동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으나, 일부 중소 종교단체에서 비대면 종교집회에 대한 기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4월 8일부터 5월 말까지 온라인 종교활동을 지원한다”고 4월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온라인 종교활동이 어려운 200인 이하 중소 종교단체로, 문체부와 과기부는 스마트폰 기반의 영상 촬영과 송출에 대한 기술적 방법을 안내하고, 이에 필요한 데이터와 통신환경을 지원한다.

기술 지원으로는 카카오 TV · 네이버 밴드 라이브 등의 인터넷 생방송 동영상 플랫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매뉴얼)를 제작 · 배포하고, 전용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 온라인 종교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교단체별 영상송출용 이동통신 1회선에 대해 5월 말까지 2개월간 영상 전송에 필요한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한다.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LTE, 와이파이(Wi-Fi)를 통해 영상을 전송하며 5세대 통신(5G) 실내망(인빌딩) 구축을 요청하는 경우, 건물주와 협의된 곳을 중심으로 구축 · 지원한다.

온라인 종교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 종교단체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누리집에서 안내서를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전화(1433-1900)로도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온라인 종교활동과 더불어 비대면 신행활동으로 주목되는 ‘승차(乘車) 종교활동’을 위한 부처간 협력도 이어진다. ‘승차 종교활동’은 주차장 등 한정된 공간 내에서 종교활동 실황을 소출력의 무선국을 활용해 송출하고, 신도들은 자동차 내에서 이를 청취하는 새로운 형태의 종교활동이다.

문체부는 “그간 박람회, 국제 영화제 등의 현장 안내를 위해 제한적으로 소출력 무선국을 허가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전 국민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종교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승차 종교 활동에까지 그 범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체부와 과기부는 관련 정책 적극 홍보하고 특정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적정 소출력 주파수를 도출하기로 했다. 또한 승차 종교활동이 진행되는 공간 내에서 무선국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승차 종교활동에 부합하는 주파수, 출력 등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과기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비대면 종교집회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나아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영상회의, 원격교육과 같은 비대면 서비스가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3일 서울 국무총리공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종교계 주요종단 지도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종교계가 함께 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며, 함께 걱정하고 지혜를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하다. 정부 역시 종교계 협력에 발맞추겠다”며 종교문화 활동 지원 예산의 조기집행, 온라인 법회 · 예배 등 비대면 종교활동에 대한 지원책 마련, 종교시설의 방역물품 확보 등을 약속했다.

“건강한 사찰음식, 도시락으로 즐겨요”

사찰음식전문점 ‘발우공양’, 점심도시락 판매 개시

사찰음식 파인 다이닝 ‘발우공양’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점심 도시락을 선보였다.

발우공양이 ‘사찰음식 점심 도시락’을 출시했다. 가격은 1만원으로, 하루 100개 한정 판매다. 도시락 수령 한 시간 전까지 발우공양으로 전화 주문하면 되며, 10개 이상 단체 주문은 배달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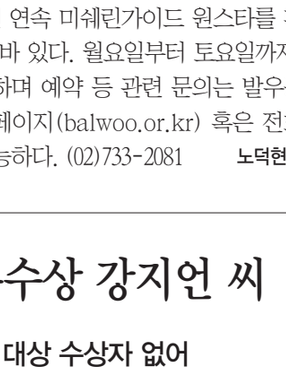
메뉴는 제철 채소와 사찰에서 직접 담근 장류를 활용한 전채, 나물무침, 장아찌, 사찰식 김치 등의 반찬 6~7종에 밥과 국이다. 오신채와 젓갈, 인공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아 자극적이지 않고 깔끔하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혼밥 및 도시락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겨냥, 1인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5만원인 코스요리를 1만원에 압축해 선보였다는 점에서 사찰음식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발우공양 관계자는 “면역력 강화에 좋은 제철 채소를 듬뿍 넣은 도시락으로 맛과 건강을 함께 잡아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3월 10일부터 서울 지역 선별진료소 9곳에 사찰음식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다. 4월 9일에는 팔공총림 동화사가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함께 대구 지역 의료기관에 사찰음식도시락 1000개를 지원하기도 했다.

한편, 발우공양은 1,700년을 이어온 한국 사찰음식의 정신과 문화를 알리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되는 사찰음식 전문점이다. 메뉴는 선식(禪食), 원식(願食), 마음식(念食), 희식(喜食), 법식(法食)의 5개 코스를 선보이고 있다.


사찰음식전문점 ‘발우공양’에서 내놓은 사찰음식 도시락.

친환경 제철재료 사용
면역 증진 식단 구성
하루 100개 한정 판매

계절마다 해당 절기에 어울리는 재료로 메뉴 구성에 변화를 주고 있으며, 한국 사찰음식의 원형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미쉐린가이드 원스타를 획득한 바 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며 예약 등 관련 문의는 발우공양 홈페이지(balwoo.or.kr) 혹은 전화로 가능하다. (02)733-2081 노덕현 기자

동국역경원장에 혜거 스님 임명

동국대 4월 9일 인사 단행



탄허불교문화재단 이사장 혜거 스님〈사진〉이 동국대 동국역경원장으로 임명됐다. 동국대는 4월 9일 인사 공고를 통해 동국대 서울캠퍼스 불교학술원 산하 동국역경원장으로 혜거 스님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동국역경원은 1964년 설립된 불교계 대표 역경사업처로 팔만대장경의 한글 번역 등 한국불교 역경불사를 이끌고 있다.

혜거 스님은 탄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평생을 도심포교와 역경불사에 헌신해 왔다. 특히 금강경 강송대회를 열어 〈금강경〉을 널리 알리는 데 힘썼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달력사업 의혹 ‘혐의없음’ 결론

중앙지검 2일 불기소 결정
“고발 인정 어렵고 증거無”
조계종 “명예훼손 책임져야”

검찰이 조계종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김용환 前 조계종출판사장이 템플스테이 홍보용 달력 제작사업에서 사기와 업무상 횡령을 했다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을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정해 그간 자승 스님에게 제기됐던 달력 사업 관련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4월 2일 이도흠 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와 손상훈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원장 등이 자승 스님과 김 前 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각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번 불기소 결정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달력 제작업체가 템플스테이 홍보용 달력 2000부와 판매용 VIP달력 3000부 등 2013년도 달력 총 5,000부를 제작 · 납품했고, 대금으로 1억 7000여만원을 계좌 이체했다. 템플스테이 홍보용 달력들이 우편 발송됐고, 제작비용 1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발행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총무원장의 지위와 대표성을 감안할 때 총무원장로고가 인쇄된 달력을 배포한 것인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달력 1500부를 편취 · 횡령했다는 고발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도흠 대표 등은 지난해 9월 17일 자승 스님과 김 前 사장을 사기 및 업무 횡령으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조계종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대한 무고와 명예훼손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은 “지난해는 현 총무원장 스님의 임기 첫해로 임기 중 실현해야 할 36대 총무원의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종도들의 신뢰를 모아야 할 시기였다. 도반HC 또한 새로운 대표이사 스님이 취임해 종단 수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모색의 시간이었다”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검찰고발과 언론공표로 인해 조계종과 도반HC는 많은 상처를 입었고, 지금도 그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행위 등으로 종단의 질서를 어지럽힘은 물론 종단의 위상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허위사실에 따른 무고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제3회 성운학술상 우수상 강지언 씨

장려상 김희종 · 황선미… 대상 수상자 없어



(사)한국불교학회는 “염불신앙의 학문적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제정된 성운학술상 제3회 수상자로 우수상에 강지언(서울대 종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 사진) 씨가 장려상에 김희종(동국대 선학과 박사과정) · 황선미(동방문화대학원대 상담심리 박사)가 선정됐다”고 4월 8일 밝혔다. 대상 수상자는 선정되지 못했다.

우수상 수상자인 강지언 씨는 논문 ‘초기 선종과 근현대 불교학의 염불 고찰’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는 일본에서 수용한 근현대 불교학의 염불에 대한 인식을 비판하면서 초기선종 문헌에 근거해 선과 염불 간의 관계 정립을 모색했다.

장려상 수상자인 김희종 씨는 ‘금강경 독송과 체험 사례 고찰’을 통해 바른법연구원의 주말 출가 독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금강경 수지 독송’의 대중화를 제안했다. 황선미 씨의 ‘관상(觀想)의 심리치유적 고찰-관무량수경 색신관(色身觀)을 중심으로’는 〈관무량수경〉의 16관법 가운데 색신관을 소개하고 치유 효과에 대해 분석했다.

시상식은 4월 24일 오후 1시 서울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우수상 수사장에게는 200만원,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100만원이 수여된다.

한편, 성운학술상은 염불이나 기도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前 한국불교학회장 성운 스님의 발의 및 상금 지원으로 제정됐다.

신성민 기자

